

2022 Jul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6월 동향

미 CPI가 사상 최고치인 8.6% 경신 후 연준 자이언트 스텝 결정이 국고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으나, 월 후반으로 가며 경기침체 우려 확대에 의한 미 일드커브 평탄화 영향 반영 등으로 하락 전환

매파적 연준 스탠스와 대차대조표 축소 및 국내 5%대 물가 급등에 상승 출발 후, 세계은행의 성장 전망 하향 등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높은 미 6월 물가 상승세 속 연준 자이언트 스텝 영향 반영 등이 금리 상승 압력 요인이었던 반면, 강한 긴축의 부작용으로 부각되었던 경기침체 우려 등이 금리 상단 제한

한은 빅스텝 금리 결정 전망에도 세계 경기의 침체 가능성 재부각 등으로 소폭 하락 추세 전환 국면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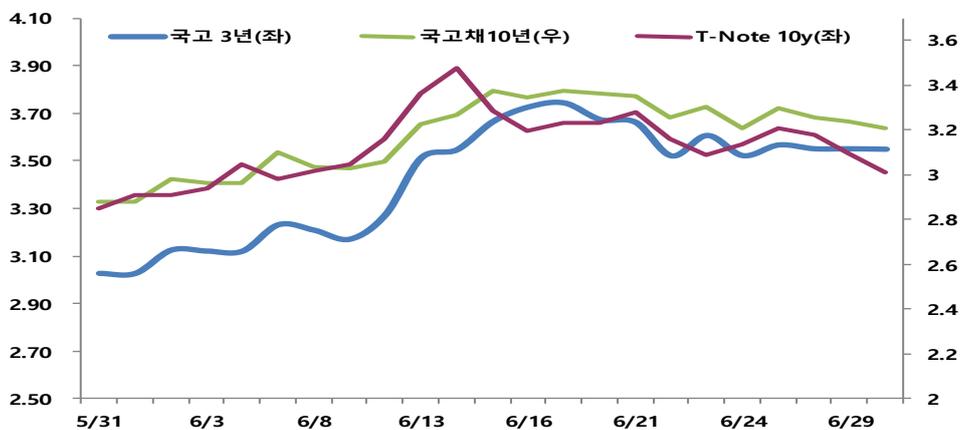
- 6월 초,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실행과 5월 국내 CPI가 5%대를 보임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상승 출발. 이어 세계은행의 성장률 하향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 월 초, 6월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실행 속에 국내 5월 소비자물가지표가 5%를 보이며 높은 상승 추세 유지가 한은의 긴축기조 강화에 대한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에 영향
 - 이어 WB(월드뱅크)에서 세계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2.9%로 크게 하향한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등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으로 전환
- 중반, 미 5월 CPI 8.6% 급등, 연준 자이언트 스텝 기대 등으로 3.5%대 까지 급등한 금리는 이어 한은의 빅스텝 전망으로 상승력 이어지다 재차 불거진 경기침체 우려에 추세가 다소 제한
 - 월 중반, 미 5월 CPI가 41년만에 최고치인 8.6%를 경신함에 따라 미 국채시장이 패닉 수준에 약세를 보이면서 국고채금리도 3.5%대까지 상승 후, 당국 시장 안정 조치에 강보합권으로 되돌림을 보임
 - 이후, FOMC에서 75bp 금리결정에도 연준 의장의 일부 도비쉬 언급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했으나, 한은의 빅스텝 전망에 상승력이 다소 이어지다 연준의 추가 자이언트 스텝 시 우려되는 경기침체 재부각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면서 재차 하락으로 전환하는 양상
- 후반, 한은 빅스텝 전망과 수요 부진 우려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영향 등의 상층 속에 보합권 등락. 이어 중국 도시 봉쇄 해제 후 경제지표 개선에 위험 선호 반영하며 상승 흐름 전환 후 미 소비자지표 부진에 재차 경기침체 우려 부각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 후반, 대내적 물가 급등 예상에 따른 한은의 빅스텝 전망이 탄력받은 측면이 세계 수요 부진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와 상충되며 보합권 흐름
 - 이어 중국 도시 봉쇄 해제 이후 제조업 지표 개선 등이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내 미 소비자 지표 부진의 반영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며 소폭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6월 평균

국고채(3년): 3.44%

T-Note(10년): 3.13%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7월 전망

7월 미 CPI의 정점 가능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하락 전망은 금리 하락 요인이지만, 국내 물가에 대응한 한은 빅스텝 매파 영향이 혼재되며 소폭 강보합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3.13	3.5 ^(F)	3.3 ^(F)

미 6월 CPI는 빅스텝 이상의 2회 금리 인상과 최근 국제유가 100달러 초반 하락에 따라 다소 감소세 전환할 것으로 전망

- 7월 FOMC에서 빅스텝 이상 금리 결정이 예상되나, 이미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거치면서 WTI가 100달러 초반으로 하락함에 따른 점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으로 보임. 이는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상단을 제한할 전망
 - 지난 5월 빅스텝에도 5월 CPI가 8.6%로 나오면서 빅스텝 효과의 시차적 제한 속에 당시 국제유가의 130달러 근접 등으로 빅스텝 효과가 제한된 것으로 판단
 - 하지만 6월 CPI는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2개월여의 시차적 효과와 국제유가 100달러 초반 하락 등으로 소폭 감소세가 예상. 이는 인플레이션의 정점 기대 가능성을 높일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빅스텝 이상의 금리정책 경로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인플레이션 대응 연준은 2회 이상의 예상 빅스텝 경로를 유지하겠지만, 이에 따른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채권시장의 선제적 가격반영 등은 금리 국내외 금리 상단을 제한할 요인

- 인플레이션 정점에도 당분간 연준 금리 경로는 2회 이상 빅스텝을 유지하겠지만, 이 요인이 하반기 경기침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드커브의 평탄화 정도를 강화함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를 통해 국고채 금리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과 IMF가 미 성장률을 속속 하향한 상황. 특히, 1분기 GDP가 최종 -1.6%로 약화된 가운데 Fed도 연간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낮추며 경기침체를 감내하려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국면
 -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향후 2회까지 예정 빅스텝 경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국내외 금리의 상승 요인이거나,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채권시장이 가격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은 일드커브의 평탄화를 통해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7월 국고채(3Y) 금리는 3.40%~3.70% 예상

- 국내적으로 2개월 이상 높은 물가상승을 전망한 기재부 예상 등이 한은의 빅스텝 금리인상을 지지할 가운데 한은이 금융불균형성까지 단기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은 국고채 금리 상승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제부총리가 향후 2개월에 걸쳐 높은 물가 상승세 예상을 전망한 가운데 실제 6월 CPI가 6%를 기록함에 따라 한은의 빅스텝 결정이 탄력 받는 측면이 국고채금리 상승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연준이 단기적으로 2회 이상 빅스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융불균형성을 고려하는 한은 스탠스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란 점도 금리 상승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통화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7월 CPI 하락 전망과 이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소폭 하락 가능성 글로벌 통화 긴축에 의한 경기 침에 우려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6 월 동향

5월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오며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결정과 이후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의 지속적 인플레이션 대응 언급 등으로 환율은 13년만에 1,300원대를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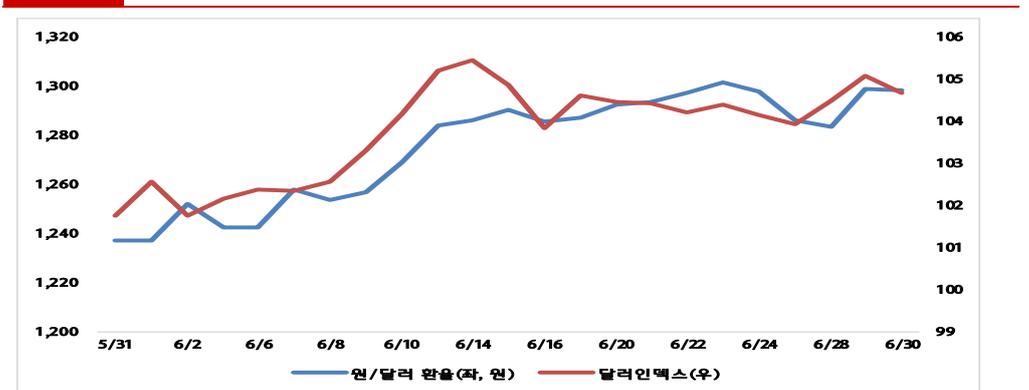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중국 위안화 약세 기조 연동 속에 미 CPI 경계감 반영되는 가운데 연준의 빅스텝 지속 여부 등이 환율 변동성을 키운 형국

미국 5월 CPI가 시장 예상 상회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급등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자극받은 가운데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결정 등이 환율 변동성을 크게 높인 형국

파월 의장의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언급 등으로 환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1,300원대 수준을 상향

- 월초, 중국의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위안화 약세에 연동하는 흐름 속에 출발 후, 연준 빅스텝 지속 여부 관련 이슈가 환율 변동성을 크게 키우며 상승 출발
 - 월초,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 경기둔화 방어를 위해 위안화 약세 기조를 보임에 따른 영향이 원화의 동조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출발
 - 이어 미 5월 CPI 대기속에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주요 연준인사들의 빅스텝 지속 여부 관련 언급 등이 달러 강세를 크게 키우며 환율 변동성도 높은 상태를 이어간 형국
- 월 중반, 미 5월 CPI가 시장 예상을 벗어난 8.6%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응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결정으로 환율은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강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도 동시에 불거지며 달러 강세를 다소 완화시킨 양방향 국면이 나타남
 - 중반, 미 5월 CPI의 8.6% 급등에 따라 FOMC에서 빅스텝 경로를 벗어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시행. 이에 미 국내금리 급등과 뉴욕 금융시장 충격 등이 국내 자본 유출 영향에 반영되며 환율은 1,300원대 직전까지 근접
 - 이후 연준의 추가 자이언트 스텝 경로 가능성 부각 등으로 높은 환율 변동성 지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고점 인식 수출 달러 매도 확대와 향후 경기침체 우려 부각 등이 달러 강세를 다소 완화한 국면
- 후반, 주요 연준 위원들의 향후 75bp 금리인상 지지 속에 파월의장의 경기침체 감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대응 가능 시점까지 금리인상 기조 이어갈 것이라 언급에 환율은 1,300원대 상향. 이후, 고강도 긴축에 따른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 불거지며 1,300원 전후 등락하며 마감
 - 후반, 주요 연준 인사들의 75bp 금리인상 지지 등이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환율은 상승 압력 높아지는 형국을 보임
 - 이후, 파월 의장의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언급에 1,303.7원까지 상승 후, 시장참가자들의 향후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영향에 의해 1,300원 전후 등락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6월 달러/원 평균환율 : 1,277.1
6월말 달러/원 환율 : 1,298.4

7월 전망

미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 할 가능성에도 연준은 예정 금리인상 경로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적 물가 급등에 대한 한은의 빅스텝 영향 등이 상대적 완화 강세를 견인하며 소폭 환율 하락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59	1,250 ^(F)	1,220 ^(F)

6월 CPI가 5, 6월 빅스텝 이상 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 다소 감소세를 보일 경우 달러 약세 전환이 예상. 하지만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 이어간다면 오히려 강세 지속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강한 연준 긴축에 따른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안전 자산 선호 요인이거나, 인플레이션 감소세가 부각된다면 오히려 달러화는 다소 약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

7월 달러/원 환율
1,265 ~ 1,305원 예상

- 미국 빅스텝 이상 금리 결정과 국제 유가 하락이 6월 CPI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달러의 약세 전환이 예상. 반면, 여전히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물가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준의 강한 긴축 스탠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전망

 - 미국 6월 CPI는 5, 6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반영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다소 감소하며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 증대 국면. CPI 감소세가 이 경로로 나타날 경우 달러는 약세 전환이 예상
 - 하지만, 시장 예상을 벗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게 될 경우, 재차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강화 기조 속에 차월 CPI를 대기하는 시점까지 환율은 1,300원대 전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점증하는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소세가 나타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될 경우 연준 긴축이 다소 완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달러의 약세 흐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긴축 강화라는 글로벌 통화정책 측면에서 WB(월드뱅크)는 세계 성장 전망을 4.1%에서 2.9%로 크게 하향한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시사한 상황
 - 이에 미 인플레이션이 감소세를 보이며 강한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확대 시, 연준이 다소 완화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게되는 시점에 달러 강세는 다소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내적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한은 빅스텝 가능성이 완화 약세 방어 요인이거나, 수급적으로 상반기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측면은 상기 완화 약세 제한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임

 - 국내 물가 상승세가 향후 1-2개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한은의 7월 빅스텝 가능성이 대외적 완화 약세를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국내 대외수지 측면의 상반기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대외 신인도 저하에 따른 외화자본 유출 압력의 지속 가능성이 통화정책상의 완화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미 CPI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 상승세 완화되지 않을 시 추가 연준 긴축 · 글로벌 통화긴축에 의한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 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7월 CPI의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영향에 따른 시장 예상 부합 가능성 · 7월 한은의 물가 대응 빅스텝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6월 달러/엔 평균환율 : 134.1
6월 엔/원 평균환율 : 952.07

7월 엔/원 예상범위 : 940-960원

7월의 미 CPI 감소 가능성 전망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물가상승률과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른 BOJ의 엔화 약세 기조 지속이 원화 대비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견인하며 소폭 엔/원 환율 하락이 예상

- (엔화동향) 미 고용지표 호조 속 5월 연준 빅스텝 이후로도 높은 수준의 6월 CPI 결과에 자이언트 스텝 경로가 탄력 받으며 엔화 약세 흐름 출발. 중반, 연준 자이언트 스텝 결정과 이전부터의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도 BOJ 초완화 기조 지속으로 엔화는 135엔대까지 상승 후반 들어, BOJ의 약세 완화 개입과 주요 전망기관의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세가 일시 엔화 약세 견인 후, 재차 BOJ 정책 재부각 등으로 약세 전환하며 마감
- (엔/원 전망)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 속에 일본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경제 체질 약화 개선이 다소 난망인 상황. 여기에 상대적 저물가 상황에 따른 초완화정책 지속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하며 기조가 다소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 CPI 정점 가능성 확대 시 달러 약세 시점에서 엔화 강세 탄력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판단. 엔/원 환율은 미 CPI의 연준정책 반영에 따른 감소 예상과 이 영향의 상대적 원화 강세에 950원대를 소폭하향 할 전망이다
 - 일본 5월 CPI가 2%를 상회하였음에도 통화완화를 중단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판단. 여기에 무역수지가 월간 적자 추세를 이어가며 성장의 회복 동력이 여타 선진국권역 대비 크게 낮은 상황
 - 이에 BOJ는 여전히 초완화적 통화기조를 이어가는 측면이 엔화의 136엔대 상승을 지지할 전망이다. 다만, 6월 미 CPI의 감소세 확인 시, 달러의 약세 기조가 엔화 강세를 지지하겠지만, 동시에 원화에 대한 상대적 달러 약세 우위 예상에 따라 엔/원 환율은 950원대를 소폭 하향할 것으로 예상됨

유로/원 전망

6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563
6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8.9

7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35~1,355원

7월 미 CPI의 정점 가능성에 따른 달러의 소폭 약세 전환에도 유로존의 경기불확실성 등이 원화대비 상대적 약세 기조 지속 반영 등으로 유로/원 환율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예상

- (유로화 동향) 미 5월 고용지표가 연준 매패 성향을 지지할 정도의 개선에 달러 강세 반영 출발. 이어 높은 물가상황에 따른 ECB 금리인상 가능성이 유로 강세 견인했으나, 실제 6월 금리는 동결. 중반, 미 7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한 연준 스탠스가 유로 약세 견인 후, 후반, 유로존 물가 폭등이 전쟁 여파와 함께 유로경기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달러강세를 견인하면서 유로화는 전월비 약세 마감
- (유로/원 전망) 7월 미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달러 약세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전쟁 여파 지속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의한 유로존의 경기 불투명성 부각 등으로 유로화의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
 - 7월 미 CPI는 연준 빅스텝 이상 금리인상 2회와 세계수요 부진에 따른 유가 하락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세 보일 전망이다. 이는 시장에 '리스크 완화 기대를 견인하며 소폭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유로존 경제는 전쟁과 100달러 이상 유가 수준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인상 전망 희석에 따라 달러화 및 원화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p>*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잡정치, [F]-악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지, ()안은 이전지</p>					<p>한 6월 수출/수입(21.3%/32.0%, YoY) 미 5월 건설지출(0.2%, MoM) 6월 ISM 제조업지수(56.1)/ISM 고용(49.6) 6월 ISM New Orders(55.1) 6월 ISM 구매물가지수(82.2) 유 6월 CPI(0.8% MoM, 7.7% YoY) 중 6월 Caixin 제조업 PMI(48.1)</p>	
3	4	5 RBA 통화정책회의	6	7 FOMC 회의록	8	9
	<p>유 5월 PPI(1.2% MoM, 37.2% YoY) 7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15.8) 독 5월 수출/수입(4.4%/3.1%, MoM)</p>	<p>미 5월 제조업수주(0.3%) / 내구재주문(0.7%) 중 6월 Caixin 중압 PMI(42.2)/서비스 PMI(41.4) 6월 외환보유고(\$3127.78b) 일 5월 노동자 현금수입(1.7%, YoY) 4월 실질 임금증액(-1.2%, YoY) 호 7월 RBA 기준금리(0.85%)</p>	<p>미 6월 ISM 서비스지수(55.9) 유 5월 소매판매(-1.3% MoM, 3.9% YoY)</p>	<p>한 5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5월 무역수지(-\$87.1b) 일 6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6.37) 독 5월 산업생산(0.7% MoM, -2.2% YoY)</p>	<p>미 6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390K) 6월 시간당 평균 임금(0.3% MoM, 5.2% YoY) 6월 경제활동참가율(62.3%) 5월 도매무역 판매(0.7%, MoM) 일 5월 가계 소비지출(-1.7%, YoY) 6월 파산(11.01% YoY)</p> <p>Fed's Waller Interviewed During NABE Event ECB's Lagarde speaks in France</p>	<p>미 5월 소비자신용지수(\$38.069b) 중 6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1883.6b) 6월 통화공급 M0(13.5%, YoY) 6월 통화공급 M1(4.6%, YoY) 6월 통화공급 M2(11.1%, YoY) 6월 PPI(6.4% YoY) / CPI(2.1% YoY)</p>
10	11	12	13 韓 금통위	14 美 Beige Book 발표	15	16
	<p>일 6월 통화량 M2(3.2%, YoY), M3(2.9%, YoY)</p> <p>BOJ Governor Kuroda Speech at the Branch Managers Meeting</p>	<p>한 5월 통화공급 L(0.5%, MoM) 5월 통화공급 M2(0.2%, MoM) 미 6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93.1) 유 7월 ZEW 서베이 예상(-28) 일 6월 PPI(0.0% MoM, 9.1% YoY) 독 7월 ZEW 서베이 예상(-28)</p>	<p>한 6월 실업률(2.8%) 미 6월 CPI(1.0% MoM, 8.60% YoY) 6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3.0%, YoY) 6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3.9%, YoY) 유 5월 산업생산(0.4% MoM, -2.0% YoY) 중 6월 수출(16.9% YoY) / 수입(4.1% YoY)</p>	<p>미 6월 PPI(0.8% MoM, 10.8% YoY) 6월 월간 재정수지(\$-66.2b)</p> <p>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p>	<p>한 6월 수출물가지수(3.1% MoM, 23.5% YoY) 6월 수입물가지수(3.6% MoM, 36.3% YoY) 미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50), 경기연황(53.8) 7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47.5), 1년 인플레이션 6월 소매판매(-0.3% MoM) 5월 기업채고(1.2%) 6월 수출물가지수(2.8% MoM, 18.9% YoY) 6월 수입물가지수(0.6% MoM, 11.7% YoY) 6월 광공업생산(0.2% MoM) 6월 설비가동률(79.0%)</p>	
17	18	19	20	21 ECB, BOJ 통화정책회의	22	23
		<p>미 6월 주택착공건수(-14.4% MoM) 6월 건축 허가(-7.0% MoM)</p>	<p>미 6월 기준주택매매(-3.4%, MoM) 유 7월 소비자기대지수(-11)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7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45%) 독 6월 PPI(1.6% MoM, 33.6% YoY)</p> <p>ECB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p>	<p>한 7월 수출 20월(-3.40% YoY) 7월 수입 20월(21.1% YoY) 미 7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3.3) 6월 선행지수(-0.4% MoM) 유 7월 ECB 단기수신금리(-0.5%) 7월 ECB 마진 대출 퍼실리티(0.25%) 7월 ECB 주요 채용자금리(0.0%) 일 7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산고(-0.10%) 7월 일본은행 10년 수익률 목표(0.0%)</p>	<p>한 6월 PPI(9.7% YoY) 일 6월 전국 CPI(2.5% YoY)</p>	
24	25	26	27 美 FOMC(~28)	28 美 FOMC	29	30
	<p>한 6월 소매판매(10.1% YoY) 미 6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01) 7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17.7)</p>	<p>미 6월 신규주택매매(10.7%, MoM)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98.7) 7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9) 일 6월 PPI 서비스(1.8% YoY)</p>	<p>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96.4) 미 6월 소매채고(1.1% MoM)</p>	<p>한 8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8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미 FOMC 금리 결정(1.50% ~ 1.75%) 미 2Q GDP 물가지수 2Q GDP 연간화 QoQ 2Q 개인소비 유 6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p> <p>Fed Chair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p>	<p>미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7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7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7월 MNI 시카고 PMI 6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6월 PCE 디플레이터 유 2Q GDP(0.6% QoQ, 5.4% YoY)</p>	
31	<p>중 7월 중앙/제조업/비제조업 PMI</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